

간호원의 위치에 대한 전망 : 교육부문

김 수 지 박사
(연세대 간호대학)

본인은 “간호원의 위치에 대한 전망”이란 주제를 교육부문에서 적용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미래사회에서 전문 직업인의 긍지를 가지고 가르칠 간호원교육자(Nurse-educator)의 전망을 논하는데 있어서 발제강연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 개방체계인 인간에 대한 포괄적 이해
- 현재와 미래의 전문직 간호원상의 동일성 (identification)
-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의 전문직 간호원의 역할 및 기능을 함양하는 간호교육자의 교육 철학
- 교육대상자인 학생에 대한 이해
- 간호교육자의 역할 및 자질
- 간호교육의 목적 및 전략
- 간호교육방법 그리고
- 현 시절에서의 대책을 제시하는 순서로 발표하려고 한다.

1. 개방체계인 인간의 가능성

사람은 이미 완성된 달팽이꼴의 존재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스스로를 이룩해 나가는 열린꼴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형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의 태두리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그 태두리를 넘어서 무엇인가 되어져가는(becoming) 역동적인 열린꼴이라고 볼 수 있다. 일찌기 실존철학자 Kierkegaard는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나와 나 자신이 관계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과 관계 함으로서 하느님과 관계하고 이웃과 관계하는 관계적 구조체계”라고 하였다. 인간을 초월 대상으로 다룬 간호이론을 발전시킨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상호작용(interact)하는 전인적 존재(Wholistic Synergistic Being)”로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미래의 간호원의 위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한가지의 인간관을 전제하겠다.

즉 「사람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스스로를 이룩한다」는 인간관이다. 이러한 전제의 인간관을 오늘 우리의 주제에 적용하면 「미래의 간호원은 그들의 행동 즉 간호행위를 통해서 전문직 간호원의 위치를 이룩한다」고 할 수 있다.

2. 현재와 미래의 전문직 간호교육자 상에 대한 동질성

사람은 처해있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안에서 자신의 삶의 세계를 건설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일을 통하여 비로소 스스로를 이룩한다. Adre Malraux (1948)는 “시대들과 민족들과 문화의 전통들의 차이를 조율하는 사람의 동일성(identification)은 하나의 사실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사람들이 실현해야할 과제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마치 특색있는 여러가지 악기들이 각각 제 소리를 나타냄으로서 악기가 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어 전체적인 심포니를 만드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볼 때 대두되는 문제가 오늘의 “우리”와 내일의 “우리”사이의 동일성이다.

실재없이 변하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우리의 일관된 역할수행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한 현재의 우리가 미래의 “우리”를 닮아가려는 동일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깊이 다룬 철학자 Lipps와 Marcel은 이러한 “우리의 동일성”을 약속에서 보여주는

는 “믿음성”의 관계에서 살피고 있다. 이들은 우리의 삶의 현상인 “약속”에서 출발하여 이 약속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믿음성”의 본질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동질성”의 창조를 논한다. 「사람들은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와 동일성을 가졌다는 것을 보장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위해서 약속을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모든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조건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믿음성 있게 지킨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현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내적인 움직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믿음성을 통해서 영속적인 자신의 동일성을 이룩한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모든 실재적인 움직임과 변화속에서 “우리”라는 미래의 형이상학적인 실체 즉 판별적 실체인 머리모만 생각하는 “나”가 삶의 믿음성을 통해서 비로소 이룩된다는 말이다. 믿음성으로 참여하고 충실히 주어진 과제들을 약속으로서 지켜 이행하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지배하고 그의 영원한 참다운 존재를 창조한다. 따라서 영원하고 참다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고 바라는 동일성의 상이다.

3. 미래의 전문직 간호의 역할 및 기능을 함양하는 철학적 교육사상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삶은 나의 주관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인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Martin Buber는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 간호교육자의 바람직한 동일성의 상을 위한 역할 및 기능은 어떤 관점에서 교육할 것인가?

여기에서 “인식”과 “신념”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식은 객관적인 분석에 의한 학문적인 것이며 주로 이성의 기능인데 비해 신념은 정서와 의지를 통합한 전인적 태도에서 오는 것이며 가치판단에 근거한 주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인식은 우리에게 여러 현상들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가져다 주지만 주체적인 가치판단에 의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만남”이라는 현상은 객관적

인 인식만을 포함하지 않고 인식대상으로서의 너와 인식주체로서의 나의 전인적인 관계를 포함한다. 그러면 “동일성의 상인 바람직한 전문직 간호교육자가 될”과 “만남”의 관계를 더 뚜렷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남”이라는 개념을 다른 교육학적인 개념들과 비교해 보자.

흔히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 “만들다”의 교육개념에서는 교육을 수공업적인 기술과 같이 이해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도 많은 간호교육자들 중에 그러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을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고 이해하던 여기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육관이 나타난다. “만들다”와 “기르다”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만들다”가 수공업적인 기술에 해당한다면 “기르다”는 식물재배에 해당하는 말이다. “만들다”의 교육에서는 교육자가 피 교육자를 마음대로 지배하면서 작용하지만 “기르다”의 교육에서는 교육자가 피 교육자 자신이 자라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만들다”의 교육에서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급하면 서두를 수 있지만 “기르다”의 교육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교육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전인으로서 자라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따라서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르다”의 교육사상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한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원유인즉 첫째로 우리의 사람됨은 단계적으로 자라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장 결정적인 차원에서는 언제나 비약을 통해서 이룩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의 사람됨은 우리안에 미리 주어진 소질을 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 객관의 세계를 포괄한 역동적인 삶에 의해서 창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 나타난 개념이 “만남”의 개념이다. 즉 나의 사람됨은 그 결정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언제나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이룩된다는 것이다. “만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차원이 비약적으로 달라지고 삶의 방-

향이 바꾸어지는 그런 사건이다. 따라서 이 만남에서는 지성이나 정서나 의지의 열은 표현이 아니고 경험을 포함한 나의 존재의 깊은 곳과 전인적인 연결의 표현이므로 교육자는 다만 이 만남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 뿐이다.

4. 교육대상자인 학생에 대한 이해

간호교육자는 우리의 교육대상자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대상자는 대개 17,8세~23,4세의 청년기에 해당하는 여성들이다.

현대사회에서 청년기가 길어지고 있음은 우리가 다 주지하는 사실이다. 긴 청년기는 교육적인 견지에서 볼 때 보다 풍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할 수 있다. 청년기는 비교적 변동없이 평생을 두고 지니고 생활할 인생관, 사회관, 직업관의 단안을 확정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보다 높은 지적, 도덕적 정서적인 성숙을 이룩하는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Self Identity) 즉 신체, 직업, 친구, 여러 사회조직, 국가, 사상, 역사등 온갖 세계속에서 자기의 능력, 존재, 위치, 역할이 무엇인가를 탐색 실험하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나”는 고립되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사회와의 어떤 맥락속에서의 “나”로 탐색되며 발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발견이라는 과업은 동시에 사회발견이라는 과업을 수반한다. 가정 직업세계에서의 “나”를 발견하려면 우선 그 직업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업사회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일을 들춰보는 경험은 꼭 필요하다. 서울 청소년회관에서 조사한 청소년의식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1976)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가정과 사회, 학교에 대하여 높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청년기의 일반적 특성이며 세계적인 경향이기는 하나 외국과 비교해 볼 때 그 불만의 강도와 폭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1970~76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간호학생에 관한 연구논문 12편을 분석한 김의숙의 결과도

이와 일관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에 보면 조사대상자의 65~50%가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간호학에 흥미를 잃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지적한 세가지 층에서 특히 교수들에 대한 불만족과 교과내용 자체와 실습에 대한 불만족을 지적하고 있다.

5. 간호교육자의 역할 및 자질

간호교육은 오늘과 내일을 위해 전문적으로서의 실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이다 이는 간호교육자야말로 미래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있는 간호원을 공급하는 일에 전무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그러던 이러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 간호교육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간호교육자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본다. 그 하나는 간호교육기관에서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간호교육자 개인적인 측면에서이다.

우선 간호교육자는 간호교육기관에서 1)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직 간호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2) 효과적인 교과과정의 발전과 수정보완을 계속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3) 잘된 교과과정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4) 개인적인 측면에서 간호교육자 자신이 미래의 예측된 현상을 오늘의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자신감과 창의력을 가지고 선진수행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5) 연구 및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

간호교육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자 자신이 능력있고 신빙성 있으며 간호의 이론, 실무, 연구면에 걸친 원리와 자동성, 독창성, 그리고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자질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내일의 도전을 충족시킬수 있는 능력있는 간호교육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논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실정을 참조하겠다.

전문직 간호교육자를 준비하는데는 세가지 방

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간호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수준을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기 위해서 수련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훈련수준을 더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학사 및 석사, 박사, 간호교육과정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것이며 셋째는 현존하는 간호교육자를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6. 간호교육의 목적 및 전략

Roy가 전제할때로 “질병은 인간삶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질병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의 간호교육 목적은 급변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건강과 관련된 항위문제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소집단 형태 단위의 실제경험, 1:1의 상담과, 지식전달과 동시에 일방적, 주입식의 관계가 아닌 스스로 질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7. 간호교육방법

전인적 상황을 다룬 간호이론에 근거한 지식과 실습교육으로서의 현장학습 방법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현장 학습형태는 각종의 직장훈련, 각종실습, 각종수습, 각종봉사, 각종조사연구일수 있다. 장소는 학교, 보건소, 병원, 공장, 관청, 회사, 연구소, 공항, 직장등 사회의 모든 건강과 관련된 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장 학습은 1) “간호적 현실에 접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발견해야 할 간호원 자아를 보다 정확하고 풍부하게 보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2) 동시에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간호적의 환상적 이해나, 지나친 낭만적 이해 또는 부정적 이해를 보다 실제 현실에 가깝게 시정해 볼 수 있고 3) 학교나 책에서 얻은 간호전문직에 관한 여러 상징적 이해를 보충, 보강, 시정할 수 있는 기회로 4) 학생 자신에게 주변인적인 소외에서 벗어나서 참여의 만족감, 성취감, 충실감을 주는 잇점들이 있다.

8. 현 시점에서의 대책

1) 학생들을 기성세대의 과거경험과 우리들의 입장에서만 보지않고 이들이 생활하고 또 생활해 나가야 할 오늘과 내일의 사회적 상황과 그들의 처지에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간호교육자들의 세대관 자체가 변해야 한다.

2) 간호교육 기관에서는 각종 간호전문직에 종사하는 간호원들과의 대화와 전문인들과의 공동적 작업을 갖을 기회를 더욱 늘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학생들을 단순한 “지식용기”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렇게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제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4) 전문직 간호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간호교육부문에서 간호원의 위치가 어떤것일까라는 문제는 우리 간호교육자들이 어떻게 대처하게 될 것이냐는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게 된다. 간호교육자의 영원한 본질은 숨어있는 것으로서 찾을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창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References

- 이규호, 사람됨의 뜻: 철학적 인간학, 제일출판사, 1967.
- 김수지, 미래간호교육자의 역할과 이를 위한 준비, 대한간호 20: 4, pp.47~49, 1981.
- Aydellote, Myrthe K. "The Future Health Delivery system and the Utilization of Nurses Prepared in Formal Education Programs" in Norma L.Chasko The Nursing Profession: View through the Mist New York: McGraw-Hill, 1978.
- Committee on Taxonomy "Taxonomy of Nursing Practitioners" on Unpublished Working paper on the Committee on Taxonomy of the HEW, Analysis and Planning for Improved Distribution of Nursing Personnel and Services, 1976.
- Leininger, Madelein "Futurology of Nursing: Goals and Challenges for Tomorrow" in Norma L. Chasko The Nursing Profession: Views through the Mist New York: McGraw-Hill, 1978.